고려대터-才士多出의지상

그동안필자가많은명당들을찾아여러 지역을 주유하면서 크게 감동한 일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육영기관들이좋은길지에자리해있음을알게된일이다. 뿐만아니라이들 학교 교사들의 입향도 바르게 정한 사례가많았는데이런예의본보기로고려대학교본관을드는데무리가없다고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필자는 이와 같이 많은 학교들이 좋은 길지에 바르게 세워진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시켜 사회 발전을 기하게 하려는 하늘의 배려 덕이라는 신념을 굳히게 됐다. 이러한 사례는비단학교에만그치지않고동서고금을막론하고인성을도야하고고매한신심을 널리 포교하는 고등 종교의 많은 전당들에서도수없이찾아볼수있으니경탄할일이아닐수없다.

고려대학교는조선조말우리나라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1905년에 이용익이 교육 구국의 이념을 펴기 위해 설립한 보성전문학교가 그 전신이며 제2대 부통령을 역임한 김성수의 헌신적 협조로 학교 운영이반석같이굳건해졌다. 1934년에는 서울시 안암동에 6만 3,000여 평의 학교 부지를매입하고 본관을 건립하였으며 광복후인 1946년에종합대학교인고려대학교로 승격되었고 2000년 현재 14개 대학원과 13개단과대학에 77개학과, 30여동의교사와2만여명의학생을수용하는우리나라사학의명문으로눈부신발전을이룩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의 발전은 여러 요인에 따른 것이겠지만 큰명당에건립한이학교본관건물과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풍수지리학적고증을설시해보겠다.

이 학교의 본관 건물은 북한산맥의 귀한 한 가지가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마무리를짓는편편한안암동구릉에세워져 있다. 328m 고지에서동남쪽으로 곧바로 뻗어내린산가지는미아리고개에서과협한 뒤 성신여대 뒷산을 세웠으며 다시 남진하여낮은장방형의고려대뒷동산을세우고이학교본관자리에특대양기명당을 맺어놓았다.

고려대학교터를만든용맥은328m 고지, 성신여대뒷산, 고대본관뒷산등으로 이어졌는데 모두 거문성산으로 풍수지리학계에서 귀하게 치는 거문연주삼태(巨門連珠三台)를이루었고거문성결혈법칙에 꼭맞는겸혈장으로되었으니신비스럽다.

이 터의 안산은 배봉산 남쪽 끝의 봉우리이며조산은청량산이다. 내청룡은홍릉과전농동뒷산이며내백호는용문중학교 뒷산과숭인동산가지로이루어져큰길기를취적시켰고그밖은외청룡인용마산과 외백호인남산이힘차게회포했으니특대명당다운훌륭한작국이다. 또한, 이학교 전면일대에는 반달, 보석상자, 비단띠모양의 귀사들이 늘어서 있어 이 터가 귀한 땅임을 입증하고 있고 학교 앞은 제법 넓은제기동평야가펼쳐져호연지기를기르기에알맞은지상이다.

내당수는 정릉천, 청계천과 합해지고 다시 중랑천과만나며천리장강인한강과 재합류하여 둥글게환류한뒤서북쪽으로 사라져이 터를 3중으로에워싸고 있으니 보기드문훌륭한수세이다.

이터의주변산세를살펴보면북북동쪽에는도봉산, 동동북쪽에는불암산, 서서북쪽에는 북악산, 남쪽에는 남산과 청계산, 남남동쪽에는 대모산과 구룡산, 동동남쪽에는용마산과청량산, 남남서쪽에는관악산등여러명산이포진하여화려강산을이루었다. 특히간병봉이호응하고손신봉이 교응하였으며 을방의 사문성도 드높았으니부귀겸전하고재사다출할지상으로학교터로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도유례를찾기힘든귀한자리이다.

고려대학교본관은위와같은조건들을 두루 갖춘 특대양기명당으로조선왕조의 정궁(正宮)이었던 경복궁 근정전, 5백년 동안우리나라엘리트관료를양산한국립대학격인성균관명륜당, 일본의도쿄대학교와 꼭 같은 크기의 길지이며 인재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문성 혈작으로 앞으로수많은동량지재가배출될것으로 예견한다. 또한이고려대학교터안에있는법학관도큰명당에바르게세워졌으며 대학원도서관, 홍보관, 의학관등도 좋은 길지에 자리했으니 고려대학교의 전도는 양양하다할것이다. CJ

서광석
건설원가협회회장